

아마르티아 센의 이론을 통해 보는 빈곤, 자유, 그리고 연대

Gerarld J. Beyer

발제: 박정윤 조합원

Summary

1989년 폴란드 공산주의 붕괴 이후 자유에 대한 신자유적인 개념 등장. 자유에 대한 의문의 (construal) 부정적인 개념으로 빈곤을 자유의 부재에서 오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음. 다른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은 자유로움.

이 논문에서는 폴란드 경제학자 레쎬 발체로비츠 Leszek Balcerowicz의 빈곤 개념에 반박하기 위하여 아마르티아 센의 자유 개념을 활용. 이 논문에서는 센의 다양한 층위의 자유 개념을 설명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며, 자유경쟁시장과 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어떻게 발전과 연대를 함께 이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 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센의 발전과 자유 개념은 1989이후 폴란드에서 사용한 '충격 요법 (shock therapy)'의 문제점을 보여줌.

결론 부분에서는 센의 사상과 카톨릭 사회주의 사상 Catholic social thought와의 공통점(또한 몇 가지 차이점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

Introduction

레쎬 발체로비츠의 개념

1989년 폴란드에서의 공산주의 몰락 이후, 레쎬 발체로비츠는 자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자유와 물질적인 것들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자유는 아님. 자전거가 있고 없고는 상대적 빈곤의 문제임. 이런 생각은 자유 개념 자체를 왜곡시켜 정작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함"

궁극적으로 경제의 자유는 경제 영역에서 정부의 개입이 없는 것을 의미. 자유가 극대화되어야 함.

빈곤은 사회현상이며, 자유의 상실을 의미하지는 않음.

발체로비츠의 사상- '개입이 적은 국가를 향해 Toward a Limited State' 국가가 개인에게 가능한 모든 경제적 자유를 제공하고, 이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이, 다양한 국가의 개입을 하느라 다른 자유가 침해 받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보다 나음 - 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과 같은 자유경제학자도 빈곤을 자유의 부재로 이해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음. 천주교의 사회사상도 빈곤을 인간의 자유가 박탈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이 논문에서는 센의 자유에 대한 개념을 발체로비츠에 반하는 개념으로 제시하고자 함. 이 논문에서는 도구적 자유 (instrumental freedom)와 실질적 자유 (substantive freedom)로 자유를 구분하고 그들의 관계를 제시하는 센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센의 개념에서는 자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하며, 이는 자유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임 (..because freedom is in a certain sense a social entity). 신자유주의 개념에서 보면 인간은 다른 방해가 없을 때 자유로울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의 경제영역에서의 개입은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하지만, 센은 자유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기관 차원에서의 연대가 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기관에서의 연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함. 센의 자유와 발전에 대한 개념은 사회경제전환기 초기에 있던 1989년 폴란드에서 실시한 "shock therapy"의 약점을 나타내줌.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센의 개념으로 폴란드의 사회경제 상황에서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임. 결론 부분에서는 센의 의견과 카톨릭 사회주의 사상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함.

센의 개념 Situating Sen

센은 사회주의자라 간주될 수 없음. 인간의 자유는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잘 촉진될 수 있다고 주장함. 센의 입장은 최근 가장 중요한 자유주의철학자들의 한 사람으로 대표될 수 있으나, 좌파적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도 인식됨.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자유는 우리가 소중히 해야 하는 삶의 의미 있는/평가할 만한 측면이다."

센은 "경제, 사회 및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하여 ... 변화를 가져오고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자유의 측면에서 보는 관점에서 기관(agency 국가기관으로 이해함. 역주) 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자유도 그 자체의 의미를 갖게 되며, 자유 자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우리에게 달려 있음. 센의 견해는 많은 측면에서 보기에 자유주의자로서의 각인을 나타냄.

센은 또한 공산주의 몰락 이후 폴란드에서 국회의원이자 경제학자인 요제프 칼레타 Józef Kalęta가 주장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막스주의자의 '물질의 상실로부터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만든다'는 주장을 반박함. 센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인도, 태국, 버마 등의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같이 중요시한다는 것임. 다만, 신자유주의자들과는 다르게, 자유는 근본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의 소득에 양만큼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음. 막스주의자와 신자유주의자의 견해와는 반대로, 센에 따르면 인간의 자유는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자유가 다른 자유와 비교하여 더 중요하게 간주될 수는 없음. 센의 광대한 자유에 대한 개념은 "기회opportunity"와 "과정process" 측면으로서의 자유, "실질적인 substantive" 그리고 "도구적인 instrumental"자유, "기관 agency"와 "복지well-being" 측면에서의 자유를 모두 포함함. 센은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긍정적인positive" 그리고 "부정적인negative" 자유의 의미도 포함함.

센의 4가지 자유에 관한 기본 개념

- 1) 자유의 개념을 확장시키면, "기초 수단 primary end" 과 "근본적인 발전 수단 principle means of development"
- 2) 자유는 "충분히 광의적인 의미 in as sufficiently broad way"로 이해되어야지만 함. 그래야지만 개인이 누리거나 누리지 못하는 다양한 층위의 자유 사이에 "경험적 연결고리 empirical linkages"를 이해할 수 있음.
- 3) 빈곤은 자유가 부족하게 만드는 "역량 결핍 capability deprivation"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됨.
- 4) 개인의 자유individual freedom와 개인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여 social commitments

사이에 상호적인 관계가 존재함

자유와 발전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doms and Development

폴란드의 신자유주의자들은 1989년 이후 실업률과 빈곤률 증가를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치뤄야 하는 대가로 간주했다. 센은 일정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룰 때까지 “실질적 자유 substantive freedoms”를 얻는 것을 늦어지게 만드는 발전을 우선시하는 접근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함. 센에 따르면 실질적 자유는; 기아, 영양실조, 질병, 영유아 사망률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능력,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며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관계된 자유, 정치적 참여와 통제 받지 않는 연설의 자유 등을 의미함. 센의 발전 패러다임에 따르면 정치적 참여를 위한 능력과 교육과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발전을 위한 (목적과 수단) 근본구성요소임 발전은 이러한 자유가 어느 정도까지 구현되고 있는지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 한국, 인도의 경우에도, 경제발전이 빈곤을 감소시키고 교육과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켜옴.

하지만, 발체로비츠에 따르면 민주적 자유는 사회주의시장경제에서는 존재할 수 없음.

센에 따르면, 도구적 자유는 개인이 보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데 기여함. 도구적 자유는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함. 도구적 자유는; 정치적 자유 (개인의 원칙에 의해 통제 받지 않은 언론 등을 통해 스스로 정치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능력), 경제적 시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 사회적 기회 (교육과 의료시설 등), 투명성 확보 (공개와 확실성에 기반한 개인과 개인간 거래가 가능한지), 안전보호 (극빈과 기아, 죽음 등을 대비하는 기관적 보호, 예를 들면 사회안전장치 등). 이러한 자유는 실질적 자유를 증가시키며, 도구적 자유와 실질적 자유는 서로 상호보완적이며 더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줌. 예를 들어, 교육의 자유가 시민사회생활 참여 기회와 역량에 영향을 미침. 자유간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신자유주의의 경제 우선, 나머지는 그 다음이라는 식의 신자유주의자들의 발전 스킴scheme이 잘못되었다고 센은 지적함. 센에 따르면, 발전은 근본적으로 진정한 인간 자유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됨.

자유 부재의 의미에서의 빈곤 Poverty as a Lack of Freedom

센은 빈곤을 “역량 박탈 capability deprivation”로 간주, 실질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능력상실 상태. 부와 소득은 능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님. 능력은 실제 개인이 실질적으로 얻으려고 노력하는 기능 functionings의 의미를 가짐.

“정의의 의미 The Idea of Justice”에서 센은 자유를 능력으로 이해하는 접근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개인의 우월한가 individual advantage (유리한가)는 개인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정해짐. 개인이 실제 가지는 자유의 포커스는 개인이 하거나 되고 싶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있음.

기능, 능력과 자유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예로;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하에 사는 한 여성은 정치

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음. 활발하게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참여하고 싶어했으나 실제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 다른 표현으로 그녀는 “실질적 자유”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음. 반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개인이 있다면, 앞서 예시한 여성과 비교했을 때 기능 적으로는 둘 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면에서는 같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정치참여가 가능한 실질적 자유를 누림.

한 개인의 능력 세트는 capability set 읽고 쓰기와 공동체의 시민생활에 참여하기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자유로 이루어짐. 하지만, 특정한 능력 세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제 actualizes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는 없음.

센의 자유개념에 의하면, 자유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으로써 위의 탈레반 정권하 여성과 후자의 예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도 가능해지기도 함.

존 롤스 John Rawls는 “정의론 A Theory of Justice”에서 민주주의가 부와 빈곤의 불평등이 존재하게 놔두게 되면 “공평한 수준의 정치적 자유 fair value of political liberty”를 누릴 수 없다고 주장함.

정치적 힘은 쉽게 커지며 불공평해지기 쉽다. 정부의 개입 장치와 법이 작동하기 쉽게 만들며, 우위를 가진 이들은 보다 우위의 위치를 선점하게 된다. 따라서 정치와 사회적 불평등은 정치적 평등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롤스에 따르면, ‘**개인의 소유 private ownership**’은 생산과 재산의 수단으로, 부는 정치적 자유의 공평한 가치를 위하여 “넓게 분배되어야 함 widely distributed”, 이는 첫째, 부와 자원을 이들은 정치인과 정당에 자금을 대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공평하지 못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 언론을 통제하여 자신들의 이익과 주요의제를 내세울 기회가 더 많기 때문임.

롤스의 견해는 한가지 자유가 다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에 종종 영향을 미친다는 센의 의견과 유사함. 자유가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센은 어렸을 때 경험하게 된 무슬림 남자 Kader의 죽음을 예로 듦.

“...**경제적 자유가 없다는 것은**, 극빈의 형태로, 다른 종류의 자유를 어쩔 수 없이 침해 받는 상황에 무기력하게 내몰게 된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임금을 벌기 위해 Kader Mia는 무슬림을 박해하는 환경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 경제적 자유가 없다는 것은 사회적 자유의 부재를 낳을 수 있으며, 사회적 정치적 자유의 부재는 경제적 자유의 부재를 부채질할 수 있다.”

센의 패러다임에서 빈곤은 자유가 없음과 동일시 됨. 소득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른 이들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을 능력이 없게 만듦. 센은 빈곤을 “역량 결핍 capability deprivation”으로 정의. 센에 따르면 낮은 소득수준이 빈곤과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낮은 소득수준이 역량결핍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는 있음.

빈곤이 역량 박탈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자유를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이 지역/사회 society 마다 다양함. 소득수준이 절대적으로는 높더라도 부유한 공동체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경우 기초적인 기능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음. 상대적 소득수준이 낮은 것이 절대적인 수준의 능력결핍을 초래할

수도 있음. 불이익이 배가되기도 함 coupling of disadvantages: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소득을 얻기가 더 어려우며, 다른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필요로 하는 소득이 더 많음.

발체로비츠의 자전거가 없다고 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어떤 특정한 일상품 commodity 이 없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으로 이끌 수도 있음을 간과한 것임. 자전거나 컴퓨터가 있다고 해도, 정치적 자유가 없는 독재정권에게 받았다면 여전히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음.

“연대 없는 자유는 없음”: 센의 견해에 따른, 사회적 관점에서의 자유 (결론)

“No Freedom without Solidarity”: The Social Dimensions of Freedom according to Sen

센은 개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사회적 산물이라고” 봄. 이는 폴란드의 사회주의 운동 *solidarność* movement의 “연대 없는 자유는 없다”는 격언과 유사함. 센은 개인의 자유가 그 자유를 보호해주는 사회적 장치가 있느냐에 좌우된다고 주장하여, 자유의 실현이 사회연대가 필요함을 이야기함.

또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책임 또한 가져옴. “역량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 그 능력 ability – 힘 power - 에서 발생하는 책무accountability 는 역량의 일부분으로, 이는 의무적 요구라고 부를 수 있는 책임 duty 도 발생시킴.

합리적 선택 이론 rational choice theory에 반하여, 센은 이성이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이타적 욕구를 적어도 도와준다고 주장하면서도, 도와야 하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스스로의 자유를 쓰려고 강요할 수 는 없다는 것도 인정함.

“도덕적 추론 moral reasoning”.

Tom Paine, Mary Wollstonecraft는 자유와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며 모두의 자유 증진을 위해 효과적인 힘의 사용이 필요함을 근거로 함. 역량을 가지고 있거나 실질적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가능한 경우,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옹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카톨릭 사회주의 사상의 연대의식에 발맞춰 센도 인간은 모든 이들의 자유를 옹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함. 인간은 “환자patient 가 아니라 행위자agent로 자기자신의 필요와 관심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스스로의 가치와 목표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고 주장. 사회정의의 갖추는데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함. “공유 책임 shared responsibility”은 개인의 자유와 의무가 함께 실현되도록 도와줌.

센의 패러다임에 의하면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의 경우 다양한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 있음. 역량 셋트 capability set또는 기능이 소득수준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존 폴 교황: 글로벌경제는 지나친 물질과 이익 추구하는 자유를 지나치게 허락하여 그 결과로 빈곤과 제도적 소외를 결과로 자유가 제한되는 희생을 가져오게 된다.

센과 카톨릭 사회주의 사상은 자유가 혼자 남겨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음. 센의 사상은 철학적이고 경험적인 주장을 통해 빈곤이 어떻게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 부재인지를 보여줌.